

지역 소식통

소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께 카네이션 선물

완주군 소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신호, 유정희)가 관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6일 소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 130명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 어버이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협의체 위원들과 각 마을 희망지기(명예사회복지공무원)는 집집마다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직접 준비한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안에 사만 주로 활동하며, 적절한 시간을 보냈을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방문을 받은 어르신들은 "예전만큼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것 같아, 때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신호 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소소한 기쁨,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생활 속 거리두기
'일석이조' 효과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실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의 협조하에 3차에 걸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1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감소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수칙 등 개인·집단방역 수칙을 널리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경제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시민의 일상 경제활동과 감염예방이 조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

완주군,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3-3-3 운동 적극 시행
3개국 직원·3개 전통시장서·이달중 3회 식사와 장보기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완주군이 3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개 전통시장 장날에 매달 3회 점심을 먹고 장을 보는, '완주 골목상권 살리기 3-3-3 운동'을 적극 펼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TF' 회의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각 분야별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강도 높게 논의했다.

완주군은 이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참여 방안'과 관련해 5월 중 군청 3개 국(局) 직원들이 삼례와 봉동·고산 등 3개 전통시장 장날에 돌아가며 한 달에 3번 방문해 점심도 먹고 장을 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주군 전통시장 3곳은 매달 특정 날짜에 맞춰 5일장을 운영하고 있어, 군청 3개 국 직원들이 돌아가며 이날 날짜에 맞춰 장날에 점심도 먹고 장도 본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삼례 전통시장은 매달 날짜의 끝자리가 3일과 8일에, 고산 시장은 4일과 9일에, 봉동 시장은 5일과 10일에 각각 5일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복지국의 7개 과 240여 명의 직원들은 이날 13일 문을 여는 삼례 5일장에서 점심을 먹고 장을 보고, 20일에는 봉동 5일장을, 29일에는 고산 5일장을 각각 방문하게 된다.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경제산업국 6개 과 120여 명 직원들도 14일(고산)과 18일(삼례), 25일(봉동) 등 3번 전통시장에서 식사도 하고 장도 보게 되며, 건설안전국 5개 과 직원들도 15일(봉동)과 19일(고산), 28일(삼례) 세 차례 전통시장을 찾게 된다.

완주군은 3개 국 600여 전 직원들이 장날에 점심을 먹고 장을 보는 등 1인당 1만5천 원 가량 소비할 경우 매달 8천만~1억 원 가량의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단체에서 1회성 장보기 행사가 아니라 장날마다 부서별로 돌아가며 점심도 먹고 필요한 물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은 흔하지 않아, 완주군의 골목상권 활성화 3-3-3 운동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풀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완주경제의 주체"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각한 매출인 가운데 전 직원들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여 기쁘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해 관광안내판 디자인 확정에 이어 관광안내판을 제작·설치하는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4일 가졌다.

도보여행 관광안내 구축사업 '첫발'

완주군, 전국 지자체 최초 문체부 주관 공모 선정·사업 추진

완주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보여행자를 위한 표준 관광안내체계를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6일 완주군은 지난해 관광안내판 디자인 확정에 이어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4일 가졌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단계사업에서 확정된 5종의 디자인과 100여개의 관광안내판 설치지점을 기준으로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설치지점을 확정하고, 주요 관광지인 삼례읍, 소양면, 구이면에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한다. 특히, 안내판에는 야간관광객을 위한 태양광 등 최신 조명도 설치된다.

국내 최초 IoT기반 태양광 실시간 원격모니터링과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관광안내 맵 지원 서비스를 탑재해 구축할 계획이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은 "스마트 관광시대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개별 관광객 편의서비스를 위해 도보여행 관광안내구축 사업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오는 2021년 완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보여행 관광안내구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완성된 모델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올해 지적측량기준점 623점 재설치

정확한 지적측량 기준점 제시
토지경계분쟁 최소화에 앞장

김제시는 2020년도 본예산에 8,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623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초인 지적기준점 7,323점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합동으로 2년(2017~2018년)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제조사 결과 도로 확·포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 등의 원인으로 지적기준점 2,549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빈도가 높으며 인근에 지적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2019년에 642점, 2020년에 623점을 재설치했다.

기준점 망실이 인한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측량성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정비하고 정밀도 향상을 도

모할 방침이다.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공사 시공업체나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고, 또한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 발견 즉시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민원지적과장은 "향후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자봉센터,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사)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최병철)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선정 된 사업 "안전손잡이는 안심지팡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상생활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봉사단들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해주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안심한 김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공모사업은 자원봉사자의 주도성, 협력성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

국민 자원봉사 프로젝트로서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중 1·2차 심사에 거쳐 최종 45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이 중 김제시자원봉사센터가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돋보이며 최고 지원 금액인 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5월부터 사업진행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치매안심센터, 장애인과 가족 대상 재활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지지 재활교실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연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 오는 5월 14일부터 매주 1회(목요일 2시간씩) 16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발열체크 및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이 방역체계를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교실은 장애인의 근력, 유연성, 일상생활동작 능력을 향상시키

고 심혈관질환 재발 방지교육 및 식습관 개선과 장애인 및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등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등록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 맞춤형 재활체조 △ 명상수업 △ 공예치료 △ 웃음치료 △ 노래교실 등뿐만 아니라 △ 심리상담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여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회복과 사회참여를 증가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및 기능회복과 예방에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